

지주회사

왜 갑자기 지주회사 설립 결정이 빈번해질까

2013. 4. 9

지주회사/상사
Analyst 김준섭
02.3779-8919
jskim@etrade.co.kr

대한항공 지주회사(한진 KAL홀딩스)에 이어, 한솔제지 역시 지주회사 설립

지난 3월 22일, 대한항공이 지주회사인 한진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할하며 지주회사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4월 8일 한솔그룹의 한솔CSN의 투자사업부문과 한솔제지의 투자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 합병하여, 한솔그룹의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공시하였다.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도입으로 한진→대한항공→정석기업→한진의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한솔제지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체제 도입으로 인해 한솔CSN→한솔제지→한솔EME→한솔CSN의 순환출자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인해 지주회사 설립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 기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공여법인)이 지배주주가 직접 소유한 법인(수여법인)에게 몰아줌으로써 지배주주의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 규정은 2013년부터 적용(12월 결산법인)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최대주주 관계인의 지분보유 30%, 내부매출 비중 70%가 넘는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세법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여법인인 경우(지배주주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특수관계법인(공여법인)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이 존재한다. 즉, 특례조항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므로 자연스럽게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지주회사 설립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주회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따른 지배구조 투명화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과세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특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으로 기능하고 있어, 특례조항은 향후에도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현 상황을 통해 투자자인 우리가 얻어야 할 함의는 1) 지주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2) 지주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대기업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투자 기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주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준섭)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부류